

## 미 증시, 물가 지표 소화와 영국 우려 완화에 기대 상승 전환 성공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나스닥이 3.2% 급락하는 등 장 초반 변동성 확대. 그러나 높은 물가로 미국 소비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수 있어 향후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 축소. 여기에 영국 정부의 감세안 추가 변경 기대로 파운드화가 급등하자(달러화 약세)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격한 상승 전환에 성공, 저점 대비 5% 넘게 상승(다우 +2.83%, 나스닥 +2.23%, S&P500 +2.60%, 러셀2000 +2.41%)

###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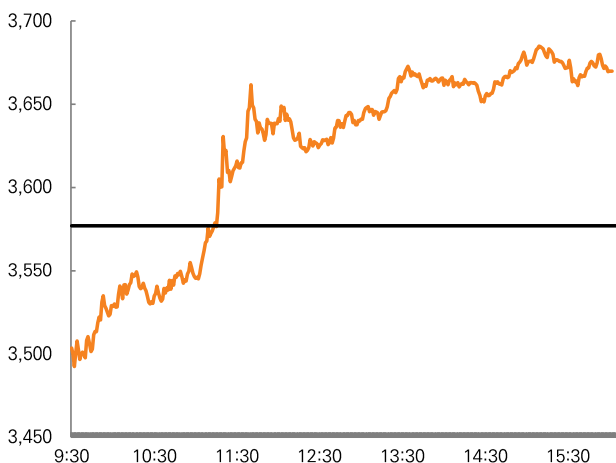
•TSMC(+3.92%)는 분기 이익 급증 발표 등으로 상승. AMAT(+4.49%)은 최근 대 중국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램리서치(+5.13%)는 물론 인텔(+4.30%), 마이크론(+4.00%), 엔비디아(+4.00%)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4% 상승. 반면, 아마존(-0.33%)과 넷시(-9.27%) 등은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다만, 지수 반등에 힘입어 낙폭 축소

###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06%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31.1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63% 상승. KOSPI는 1.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장 초반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으나, 관련 소식 소화 후 저점 대비 5% 넘게 급등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원인 중 하나였던 영국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는 달러 약세 요인이기 때문. 더불어 전일 옵션만기일 동시호가에서 하락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 되돌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그렇지만, 결국 경기 침체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5% 내외 상승 출발 후 달러화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162.87	-1.80	상해종합	3,016.36	-0.30
KOSDAQ	651.59	-2.99	홍콩항셱	16,389.11	-1.87
DOW	30,038.72	+2.83	베트남	1,050.99	+1.56
NASDAQ	10,649.15	+2.23	유로스톡스 50	3,362.40	+0.93
S&P 500	3,669.88	+2.60	영국	6,850.27	+0.35
캐나다	18,618.47	+2.26	독일	12,355.58	+1.51
일본	26,237.42	-0.60	프랑스	5,879.19	+1.0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① 소비자물가지수 ②파운드화 급등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8.2% 상승해 시장 예상을 상회.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6.6% 상승하며 지난달 발표된 6.3% 대비 상승폭 확대. 이렇듯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나스닥은 장 초반 3% 넘게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가솔린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며 전월 대비 4.7% 하락해 에너지 전체로 2.1% 하락. 중고차도 전월 대비 0.1% 하락에서 1.1%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신차 가격은 0.7% 상승했으며, 주거 비용도 전월 대비 0.7%, 의료서비스가 1.0%, 식품이 0.8% 상승해 물가 상승을 견인. 이 결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달러 강세, 2년물 국채 금리 4.5% 상회, 나스닥 3% 하락 등 장 초반 변동성 확대

한편,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약세 전환한 요인 중 하나는 파운드화의 강세. 영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감세안에 대해 추가적인 변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으며 영국 gilt채 금리도 하락하는 등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 특히 영국 BOE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이 없음을 이야기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안 추가 변경이 현실화 할 경우 일정부분 압력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이 소식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 오름폭을 확대

특히 물가 상승은 어느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점, 필수 지출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실질 임금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고, 저축률이 장기 평균을 하회해 소비 여력도 감소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연준이 긴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요 둔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돼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 초반 충격을 뒤로 하고 파운드화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와 물가 전망에 대한 기대로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 강세

TSMC(+3.92%)는 분기 이익 급증 발표 등으로 상승. AMAT(+4.49%)은 최근 대 중국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램리서치(+5.13%)는 물론 인텔(+4.30%), 마이크론(+4.00%), 엔비디아(+4.00%)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4% 상승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 부츠(+5.35%)는 건강 관리 부문 사업 확장 성공 등으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등을 발표하자 상승. CVS헬스(+2.57%), 시그나(+3.22%) 등 여타 헬스케어 업종도 동반 상승. 바이오젠(+6.41%)은 스티펠이 알츠하이머 약물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델타항공(+4.01%)은 허리케인 이언 여파로 부진한 매출 발표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자 상승

컴캐스트(+5.37%)는 씨티가 현금 창출 능력 등을 감안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 넷플릭스(+5.27%)는 다음달 광고 탑재 6.99달러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힘입어 상승. 반면, 아마존(-0.33%)과 옛시(-9.27%) 등은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다만, 지수 반등에 힘입어 낙폭 축소.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0.84%)는 허리케인 이언 등의 여파로 인한 손실 급증 발표 여파로 하락 후 지수 반등과 함께 상승 전환 성공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66	대형 가치주 ETF (IVE)	+2.73
클린테크 ETF (CTEC)	+0.76	중형 가치주 ETF (IWS)	+2.29
소매업체 ETF (XLY)	+1.09	소형 가치주 ETF (IWN)	+2.77
온라인소매 ETF (EBIZ)	-0.40	대형 성장주 ETF (VUG)	+2.16
미국 인프라 ETF (PAVE)	+2.24	중형 성장주 ETF (IWP)	+1.50
핀테크 ETF (FINX)	+1.05	소형 성장주 ETF (IWO)	+2.1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3.09
클라우드 ETF (CLOU)	+1.13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34
사이버보안 ETF (BUG)	+1.05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13	미국 국채 ETF (IEF)	-0.4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27	하이일드 ETF (JNK)	+0.19
바이오섹터 ETF (IBB)	+2.0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곡물 ETF (DBA)	0.00	물가연동채 ETF (TIP)	-0.11
반도체 ETF (SMH)	+3.0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금융	524.01	+4.14	-0.37	-5.15
에너지	641.24	+4.08	+1.19	+5.46
IT	2,106.03	+3.12	-4.49	-8.72
소재	443.87	+2.91	-1.00	-6.79
유틸리티	320.35	+2.55	-3.12	-16.62
헬스케어	1,453.26	+2.26	-0.51	-1.61
통신	164.53	+2.23	-2.76	-7.74
산업재	732.98	+2.20	-0.25	-5.70
부동산	217.08	+1.84	-2.26	-16.74
필수소비재	716.18	+1.61	+1.74	-3.98
경기소비재	1,107.27	+0.98	-3.76	-10.6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출발 후 달러화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06%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31.1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63% 상승. KOSPI는 1.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 여파로 하락.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높은 수준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매물 출회 지속. 여전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져 관련 종목의 견고한 모습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이 확대되는 등 개별 업종 차별화 또한 진행된 가운데 KOSPI는 1.80% 하락했으며 KOSDAQ은 실적 악화 우려를 반영한 게임주 약세 2.99%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장 초반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으나, 관련 소식 소화 후 저점 대비 5% 넘게 급등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단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요 둔화 등으로 물가 상승이 제어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점이 긍정적

여기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원인 중 하나였던 영국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는 달러 약세 요인이기 때문. 더불어 전일 옵션만기일 동시호가에서 하락 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 되돌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그렇지만, 결국 경기 침체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5% 내외 상승 출발 후 달러화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국 물가지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1%)나 예상(mom +0.2%)을 상회한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8.3%를 하회한 8.2%를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8.1%를 상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6%와 같았으나 예상치인 0.4%보다는 높은 수준. 전년 대비로는 6.3%에서 6.6%로 상승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21.9만 건이나 예상치인 22.5만 건을 상회한 22.8만 건을 기록. 4주 평균은 20만 6,500건에서 21만 1,150건으로 증가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 달러화, 높은 물가로 강세를 보이다 큰 폭 약세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여파와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중에 달러화가 큰 폭으로 약세 전환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990만 배럴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10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히는 등 재고 증가 소식이 전해졌으나, 장중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 더 나아가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출하 허용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확대도 상승 요인 중 하나

달러화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며 출발. 그렇지만, 영국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추가 변경 가능성이 부각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2% 내외 급등하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 더불어 높은 수준의 물가로 향후 소비가 둔화되며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 물론 이는 멕시코 페소를 비롯해 일부 신흥국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게 만든 원인 중 하나

국채금리는 9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3%에서 6.6%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 시장은 이번 물가 지표 발표로 11월은 물론 12월에도 75bp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 금리 급등 견인. 물론 영국 정부의 감세안 추가 변경 기대가 부각되며 상승분이 일부 축소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금리 상승은 유지.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35배를 소폭 상회한 2.39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했으나 영향은 제한

금은 달러 약세 전환 불구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화 약세 전환에 힘입어 상승. 곡물은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출하 허용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옥수수과 밀이 상승. 대두는 미 농무부의 수출 데이터를 기다리며 보험권 등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2%, 철근은 0.4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9.11	+2.14	+0.78	Dollar Index	112.500	-0.72	+0.22
브렌트유	94.57	+2.35	+0.21	EUR/USD	0.9777	+0.76	-0.14
천연가스	6.74	+4.20	-3.83	USD/JPY	147.28	+0.25	+1.47
금	1,677.00	-0.44	-2.94	GBP/USD	1.1325	+2.03	+1.46
은	18.92	-0.68	-8.95	USD/CHF	0.9999	+0.19	+0.93
알루미늄	2,359.50	+2.36	+0.53	AUD/USD	0.6294	+0.25	-1.75
전기동	7,573.00	+0.37	-0.45	USD/CAD	1.3752	-0.46	+0.03
아연	2,901.00	-0.26	-7.03	USD/RUB	63.7641	-0.84	+3.01
옥수수	697.75	+0.69	+3.29	USD/BRL	5.2742	-0.53	+1.51
밀	892.25	+0.99	+1.37	USD/CNH	7.1825	+0.10	+1.39
대두	1,395.75	-0.14	+2.65	USD/KRW	1,431.30	+0.45	+1.50
커피	202.15	-3.62	-7.14	USD/KRW NDF1M	1,431.10	+0.44	+1.6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58	+6.16	+13.42	스페인	3.446	-5.10	+16.20
한국	4.230	+13.80	+13.00	포르투갈	3.362	-4.80	+19.20
일본	0.250	-0.60	-0.40	그리스	4.895	-9.10	+12.40
독일	2.287	-2.70	+20.20	이탈리아	4.680	-5.70	+16.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